



관련기사: 영국에서 소개되고 있는 조지아 오키프와 뉴멕시코 pp.8

사진: Pedernal mountain viewed from Ghost Ranch, NM by Artotem (Wikipedia.com)

뉴멕시코 한인회 소식

김영신

뉴멕시코 한인회 회장

- 연중행사인 김치페스티벌이 이번 11월 5일 (토요일)에 있습니다.(5쪽에 포스터 참조 바랍니다)
- 순회영사업무가 9월 29일(목요일) 한인회관에서 있습니다, (5쪽에 포스터 참조 바랍니다)
- 매 주 수요일 오후 3시에서 4시까지 컨트리 댄스 레슨이 있습니다. 레슨당 10불입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한인회 부회장님 낸시 낸스님께 연락 주십시오(505 610-5258)
- 한인회에서 영어 레슨 클래스를 만들 예정입니다. 미국분으로 한국에서 14년동안 영어 교사했던 분을 모실 예정입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한인회장 김영신님께 연락 주십시오(505 321 7695) ■

2016년 9/10월호 내용

- 한인회소식 | 한인회 소식 | 김영신 : 1
- 한국학교소식 | 한국학교소식/신임교장인사 | 박영신 : 2
- 한인사회소식 | 지역사회소식(7-8월) : 3
- 한인사회소식 | 행사알림(9-11월) : 5
- 칼럼 | 창립34주년을 맞이하면서 | 김기천 : 6
- 수필 | 거꾸로 | 이정길 : 7
- 뉴멕시코소식 | 영국에서 소개되고 있는 조지아 오키프 : 8
- 한인사회소식 | 코원지회장 인사박광종 : 9
- 기고문 | 민족의 얼 -광복절(8.15) | 오형철 : 10
- 생활상식 | 매일 마시는 물 | 김준호 : 11
- 생활정보 | 행복한 미국생활(10) : 13
- 미술 시리즈 | 검은 피카소'장미셀 바스키아' | 심유진 : 14
- 지역소식 | UNM학위취득/샌디아연구소/ OECD "꿀찌" : 16
- 광고 | 뉴멕시코 한인교회안내 : 17
- 광고 | 뉴멕시코 한인업소 : 18-20

뉴멕시코 한국학교소식

전임 김정현 교장선생님은 부군의 직장문제로 갑작스럽게 이사를 감에 따라 7월14일로 사임하고 8월 27일에 박영신 교장이 새 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박영신 교장은 교사모임에서 교사들의 만장일치로 추천을 받고 이사회의 인준을 거쳤습니다.

한국학교는 8월 27일(토)에 개강하였고 현재 등록 학생은 28명이며 목요일과 금요일이 개강하면 40여 명의 학생이 등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교사진을 보면; 새로 임명된 박장한 교사는 경북대학교 기계공학과를 4학기 마친 후 휴학, 이번 여름 학기부터 뉴멕시코대학 CELAC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같은 대학 1학년 박혜진 교사는 미술을 전공하고있는 교사입니다. 박영신 교장, 정지에 교감, 이옥선, 이미영, 이다나, 박장한, 박혜진, 10학년 최원영 보조교사까지 7명의 교사와 한 명의 보조교사가 이번 학기를 담당합니다. 한국학교에 대한 문의는 박영신 교장선생께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505 506 6936). 아래에 신임 교장 선생의 이력을 참고로 소개합니다.

〈박영신 신임교장 이력〉

2002-2006 계명대학교 음악대학 오르간과 졸업. 4년 장학생
2008-2010 계명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교회음악 전공. 수석 졸업
2011-2012 뉴욕신학대학원 수학 중 도한
2013 건국대학교 외국인인 위한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수료
2003-2005 대구 기초생활 수급 자녀를 위한 무료방과후교실 봉사
2008-2010 대구 신생원 외국인 봉사자 프로그램 참여 - 합창지도
2011-2012 뉴욕 목양 장로교회 한국학교 총무 겸 교사
2013 서울 동안 교회 외국인 국비 장학생을 위한 무료 한국어 교실 교사
2002-2010 대구 순복음교회, 대구 비산동 교회 오르가니스트 역임
2011-2012 뉴욕 목양장로교회 피아노 반주
2015-현재 알버커키한인연합감리교회 피아노 반주자 ■

신임

한국학교장 인사 드립니다.



박영신
뉴멕시코한국학교

안녕하세요. 이번에 뉴멕시코 한국학교에 교장으로 임명된 박영신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런 인사에, 이 커다란 임무를 제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앞섰습니다. 하지만 한국학교에 대한 한인회장님을 비롯한 한인회원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과 전적인 격려, 그리고 현재 한국학교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수고를 보며 이 일은 제가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닌, 그분들의 노고와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뒤에서 열심히 돕는 자리임을 깨달아 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희 뉴멕시코 한국학교는 뉴멕시코주 안에 하나뿐인 통합 한국학교로서 이곳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동포재단에서 권장하는 양질의 교육과 태권도, 탈 만들기, 전통악기 체험 등의 다양한 문화수업을 잘 감당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에 발맞추어 이전에 아이들이 좋아했던 문화수업을 좀 더 세분화하고 교재와 관련된 활동을 다양하게 시도해 봄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한국을 이해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또한 외국인인을 위한 한국어 교실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제가 공부했던 한국어 교사 양성과정의 수업자료를 토대로 선생님들의 재교육 및 교재 연구에 힘을 실어 드리려 합니다. 이로서 뉴멕시코 안에 한국을 알리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아직은 이 자리가 염려와 부담의 자리이지만,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모든 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는, 뒤에서 돕는 자리임을 늘 마음에 새기며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학교 수업 시간입니다.



한인회장과 함께한 교사회의입니다.

뉴멕시코 한인 지역사회 소식 (7-8월)

〈광야의 소리 페이스북에 올렸던 기사를 다시 정리한 소식란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facebook.com/voiceofnm/ 또는 <http://koreanaztimes.com/nmnews>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이혜숙 사모 소천

이혜숙 보리나(이정길 교수 부인) 씨가 7월 6일 새벽 2시 10분경 소천했다. 고인의 유지에 따라 시신은 의과대학에 기증되었다. 생전에 적을 두었던 천주교 공동체에서는 목, 금, 토 3일간 저녁 7시 30분에 고인의 자택에서 연도(고인과 유족을 위한 기도 모임)를 드렸다. 연미사는 7월 11일 오후 8시 St Jude Thaddeus Church(5712 Paradise Blvd NW, Albuquerque)에서 모였다. 부군인 이정길 교수는 “안사람은 주변의 다른 사람을 많이 배려하면서 살았다.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도 뭐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함부로 잘못을 따지는 건 삼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고인을 추억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한 교인은 “고인은 생전에 만나보고 싶은 이들을 두루 만나고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전해 주고 싶은 물품을 남기고 떠나셨다.”라고 고인을 추모했다.

산타페에서 열린 국제 민속 예술 마켓에 한인 여러분이 참여

International Folk Art Market이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산타페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행사장에는 88개국에서 750명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166개의 부스를 마련했다. 그 가운데 한국인 도예작가 이천 도자기 사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김판기, 김봉태, 김종영, 최현숙 네 명의 작가와 이천 도자기 사업 협동조합의 이대영 이사장과 조합의 회계를 맡아 일하는 양승주 과장이 함께했다. 목요일 5시 반에 산타페 플라자에서 퍼레이드가 있었다. 나라별로 알파벳 순으로 행진할 때 자원봉사자들이 국가명 팻말을 들고 행진했다. 50여 나라가 참여했다. 한국은 11명이



한복을 입고 큰절을 해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한복을 차려입고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에서 많은 관람객이 한복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동했다.

아리랑 마켓에서 이천 도자기 판매

산 타페에서 열린 2016년 International Folk Art Market에 전시하고 판매했던 도자기를 아리랑 한국 마켓에서 판매한다. 판매는 이천의 작가들이 내년 Folk Art Market 행사에 다시 올 때까지 계속된다. 이천 도자기 사업협동조합 이대영 이사장은 “산타페에 국제적인 행사가 있을 때마다 아낌없이 후원해주신 뉴멕시코 교민들을 위해 무엇인가 보답하고 싶었다. 행사를 위해 가지고 온 수준 높은 작품들을 교민들이 감상해주시고 원하시는 분은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도 있다.”고 판매 경위를 알렸다.

‘The Garage’ 2016 앨버커키 저널 ‘최고의 정비업소’로 선정

앨버커키 자동차 정비업소 ‘The Garage’가 앨버커키 저널의 ‘READER’S CHOICE THE BEST OF THE CITY’에 2014, 2015, 2016년 3년 연속 최고의 자동차 정비업소(Auto Repair Shop)로 선정되었다.



7월 28일에 업체 대표인 마이크 조 씨와 부인 헬렌 씨는 앨버커키 저널 본사에서 열린 시상식에 비즈니스 별 수상자들과 함께 참여했다. ‘The Garage’는 그 외 ‘Jasper Engine’에서도 작년에 이어 GOLD AWARD를 받았다.

한인회관에서 천연염색 특강

김성희 씨가 산타페 International Folk Art Market 참여를 계기로 뉴멕시코주 한인회관에서 교민들에게 천연염색 관련 특강을 했다. 7월 13일 어버이회 모임을 베트남 식당에서 민명희 이사가 대접한 후 한인회로 모였다. 김성희 씨는 다수의 책을 집필번역한 저자이며 상해에서 활동하고 대만에서 천연염색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이천 도자기 조합과 함께 이번 Folk Art Market에 참여했다. 김성희 씨는 “올해로 네 번째 참여하다 보니 이곳 한인커뮤니티에도 봉사하고 싶어져서 한인들을 모시고 한국 문화에 대해 알리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20분 정도 어떤 일을 하는지, 왜 하는지를 알려드림을 통해 교민들이 한국문화에 자긍심을 갖고 한국을 더 사랑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강의 후 전시된 작품들을 보고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김성희 씨는 수익금 일부를 한인회에 기부했다.

Dr. 리사 신 공화당 전당대회서 연설

뉴멕시코 로스앨러모스에 거주하는 Dr. 리사 신(Lisa Shin, 48)이 뉴멕시코주 역사상 최초로 공화당 대의원 대표로 참석해 대선 후보자 지지 연설을 했다.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7월 21일 오후 오하이오주(州) 클리블랜드 농구경기장 '퀴큰론스 아레나'에서 트럼프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 2시간 여 전에 공화당의 다양성과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 연설했다. 이번 공화당 전당대회에는 24명의 뉴멕시코 대의원 중 한 명의 자격으로 참석했다.

전당대회에 찬조 연사로 초청된 것은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이민 2세 여성인 리사 씨가 공화당의 다양성과 비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로 적합하다는 것이 공화당의 설명이다.

리사 신 씨는 4분 40초의 연설에서 “뉴멕시코주의 대표 의원으로 연설하게 돼 진심으로 영광스럽다. 기독교인으로 한 남편의 아내이며 아이들의 엄마이다. 지난 19년간 안과의사로 일해왔다”며 연설 초반은 자신을 소개하고 이어 주제인 아메리칸 드림을 이야기 하기 위해 부모님의 이야기를 했다.

“40여 년 전 부모님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찾아 미국에 왔고 이민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와 자유의 땅에서 미국 헌법을 존중하고 지켜나왔다. 부모님은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고난과 희생을 겪었다. 당시로서는 딸이 오늘과 같은 자리에 서서 당당히 연설하며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하셨을 거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게 되는 꿈을 꾸는 것, 그것이 바로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겠는가?”라고 했을 때 참석자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마지막 부분은 도널드 트럼프가 가장 확실한 후보임을 알리기 위해 힐러리 클린턴을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공화당 대선 후보 지지 연설자답게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할 이유를 강조했다. “부모님 세대의 아메리칸 드림을 지켜줄 후보로, 후손들의 번영과 안전을 보장해 줄 후보, 원칙을 지켜줄 후보. 아메리칸을 위해 우뚝 서서 지켜주고 싸워줄 후보 역시 단 한 명이다. 미국을 위한 명백한 선택은 단 하나 트럼프”라면서 연설을 마쳤다.

김기천 목사 모친상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담임 김기천 목사의 모친 이정옥 권사가 7월 29일 소천했다.

김기천 목사는 한국의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7월 24일 주일예배 후 한국으로 출발해 병상을 지켰다. 이정옥 권사는 1929년 7월 4일 강원도 횡성 출생으로 1950년대 말 김도경

권사와 결혼, 장남인 김기천 목사와 김기정, 김기분 2남 1녀를 두었다. 유가족은 김기천 (부인 김숙경, 아들 김명진, 김다윗), 김기정 (부인 김문옥 부인, 딸 김은혜), 김기분 씨이다. 김기천 목사는 장례일정을 마치고 9월2일 돌아왔다.

어버이회, 영화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관람

8월 3일 오후 2시 한인회 어버이회에서는 진모영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My Love, Don't Cross That River, 2014)를 단체 관람했다.

한인회관 정기 모임에서 식사를 마치고 몇 명의 차량 봉사자들의 차를 타고 1시 20분에 앨버커키의 Guild Cinema 극장으로 향했다. 22명의 한인이 관람했고 관람료 5불은 어버이회에서 지급했다. 인터넷을 통해 이미 영화를 관람한 어버이들도 한국영화가 미국에서 상영된 것이 놀라워 그 자리에 함께하고 싶다는 극장으로 향했다. 관람 후 일부 어버이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며 감격했다. 영화의 내용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이 이곳까지 알려진 것이 놀랍다고 했다.

이들을 인솔한 어버이회 윤태자 회장은 한국에서 개봉 당시 인터넷을 통해 영화를 감상할 때는 못 느꼈던 것을 외국인들과 함께 영화를 보면서 느꼈다고 했다. 윤 회장은 “물론 현재도 시골풍경은 같겠지만 영화 배경을 통해 외국인들 눈에 한국이 아직도 가난한 나라로 보일까 염려되는 부분도 있었다. 영화관 관계자들에게 다음 기회에 또 한국 영화 상영이 있으면 알려 달라고 연락처를 남겼다. 어버이들이 집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함께 영화관으로 나들이 가게 돼서 기쁘다”고 했다.

공화당 대의원 리사 신, 어버이회 점심 대접

8월 17일(수) 공화당 뉴멕시코 대의원인 리사 신 박사가

뉴멕시코주 한인회 어버이회 회원을 점심에 초대했다. 이날 리사 신 박사는 킹 뷔페에서 점심을 대접하고 공화당 뉴멕시코 대의원으로서의 정치 소견을 전했다. 이어서 한인사회가 더욱 더 미국의 정치계에 영향력을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자리에는 부모인 신경일 목사와 신수자 사모의 지인들도 함께했다.



산타페 한인 장로교회 김석훈 목사 부임

작년 2월 전임 목회자인 노강국 목사 소천 이후 담임 목회자가 공석이었던 산타페 한인 장로교회에 8월 21일 김석훈 목사(44)가 부임했다.

김석훈 목사는 김종구 목사의 장남으로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출생했다. 장로회 신학대학 신대원을 졸업하고 장로교 통합 측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부친



역시 장로교 목사로 평생을 사역했고 은퇴 후 경기도 포천 기독교양로원에서 노인들을 돌보며 2기 사역을 하고 있다. 아내인 이현주 사모는 부산진교회에서 성장, 청년부 임원을 역임, IVF 선교회 활동을 했다. 유아교육학을 전공했다. 자녀는 진현(5학년), 진우(2학년) 형제를 두고 있다.

김 목사는 1991년 신학교 입학 때부터 20여 년간 유치부에서부터 청, 장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경험을 했다. 2010년 미국 풀러 신학대학원에 유학생으로 도미 후 6년 동안 사랑의 빛 선교교회와 선한 청지기교회 부목사로 시무했다. 산타페 한인 장로교회는 로스앨러모스 지역에 있는 한인들을 위해 매주 오전 11시 30분에 WRPC(화이트락 장로교회)에서, 산타페에 거주하는 성도들을 위해 매주 오후 2시에 WPCSF(웨트스민스터 장로교회)에서 예배드린다.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에 윤태자 코윈 총무 참여

뉴멕시코주 코윈 윤태자 총무가 '제16회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에 참석했다.

전 세계 한인 여성 지도자와 차세대들의 포럼이자 축제인 이 행사는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제주도 중문단지에서 위치한 국제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세상을 바꾸는 희망에너지, 일과 가정 양립! 코윈이 동참합니다'라는 주제로

세계 30여 개국 550명의 여성지도자가 참석했다. 여성가족부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후원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과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의 내빈이 함께했다.

행사에 참여한 윤태자 코윈 총무는 "여성들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져 가는 시대이다. 자기 일을 훌륭히 해나가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가정과 바깥일을 병행함에 있어 지혜와 안정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번 행사 참여를 계기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자녀 양육과 취업의 현장에 있는 젊은 세대들과 대화할 기회를 자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다. 발전한 한국의 모습과 또한 여성들의 활동에 따른 복지 등 많은 점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참석한 소감을 밝혔다. (아리조나 타임즈 2016.9.1에서 부분발췌) ■



뉴멕시코 한인사회 행사 알림 (9월-11월)

순회영사 업무

2016년 하반기 원거리 순회영사 업무 일정이 아래와 같이 잡혀 있습니다.

날짜: 9월 29일, 목, 오전 10시-오후 2시
장소: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문의처: 한인회장 김영신(505 321-7695)
또는 <http://usa-losangeles.mofat.go.kr>
(213) 385-9300

김치 축제

한인회 김치축제가 11월 5일 한인회에서 열립니다.



한인을 위한 법률세미나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에서는 사회봉사부 주최로 뉴멕시코 한인 여러분을 위한 법률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한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제목: 뉴멕시코 한인이 알고있어야 할 10가지 법률문제

강사: 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종합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005년 와이오밍 주립대학
법무대학원 수석졸업, 2015년 미국 법률
협회 선정 산드라 데이 오커니 상 수상, 2016
년 미국 학회 (American Registry) 선정 2016
America's Most Honored Professional, 뉴멕시코 한인회 및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고문 변호사

일시: 2016년 10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본당

601 Tylo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연락처: 담임목사 김기천 목사 전화: (505) 341-0205
사회봉사부장 이철수 권사 전화: (505) 604-6143

창립 34주년을 맞이하면서

알버커키에 온지 얼마 안 되었을 쯤 한 영화사에서 영화에 등장할 사람을 구한다며 동양인 젊은 여자를 추천해달라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무슨 영화를 만드냐고 물었더니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뉴멕시코가 이스라엘 광야와 너무도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 찍으면 많은 비용이 절감된다고 했습니다. 뉴멕시코가 이스라엘 광야와 같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광야는 모래로 이루어진 사막이 아닙니다. 뉴멕시코와 같이 좀처럼 비가 내리지 않아 식물들이 잘 자라나지 못하는 건조한 땅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광야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하면서도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했기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광야인가?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이미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던 민족들은 그 땅을 그냥 내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냥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만 얻을 수 있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이란 수백 년 동안 노예생활로 길들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안을 따라 가나안까지 4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비아 마리스(Via Maris:바다의 길)”가 있었습니다. 이 길은 애굽과 가나안을 연결하는 무역 중심도로이며 군사도로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고속도로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 길은 출발지가 있고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그 길에 들어서면 목적지 가나안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아 마리스에 들어서면 방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일단 들어서면 어디가 시작인지 어디가 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길이 없기에 어디로 가야하는지 분명한 방향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헤매고 다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도록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광야에 들어선 직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계시하셨습니다. “성막”이란 “거룩한 장막”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가족으로 만들어 놓은 장막 즉 텐트를 말합니다.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으로 성막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과 정지는

김기천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곧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이 출발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꾸리고 성막의 뒤를 따라 갔습니다. 성막이 곧 가야할 방향이었습니다. 성막이 정지하면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나눠서 거처를 만들고 머물렀습니다. 또한 성막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승리하고 불순종하면 실패하고 방황하는 삶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성막이 곧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분명한 길이며 방향이었던 것이지요. 순교자 스테반은 이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살던 공동체를 “광야교회”라고 불렀습니다(행 7:38).

광야로 이루어진 뉴멕시코 한 복판 알버커키에 한인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하던 무렵인 1982년 9월 12일에 25명의 교우들이 모여서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를 창립했습니다. 광야에 교회를 세운 셈이지요. 34년이란 세월을 지내오면서 이 광야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할 방향을 제시해왔습니다. 교인들은 출애굽 백성들처럼 교회가 가는 방향을 따라가며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순종하면서 훈련받아왔습니다. 그 결과로 2003년 3월에는 새로 지은 예배당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2009년 9월에는 교육관과 친교실을 증축하였으며, 작년 보고에 의하면 재적 159명의 교우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창립 34주년을 맞이하면서 먼저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출애굽 광야교회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가 앞으로도 뉴멕시코 광야에서 광야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



**BERKSHIRE
HATHAWAY**
Home Services
New Mexico Properties

Yong Shin Kim
Associate Broker / REALTOR®
Fluent in English & Korean
Cell: (505) 321-7695
Email: yongfre@yahoo.com
6739 Academy Rd. NE, Suite 200
Albuquerque, NM 87109
Office: (505) 888-1700



A member of the franchise system of BHH Affiliates, LLC. Equal Housing Opportunity.



수필

거꾸로



이정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수필가

역(逆)자는 거스리다 [逆流], 맞이하다 [逆旅], 배반하다 [逆倫], 어지럽게하다 [逆浪], 역적질하다 [逆黨] 등 여러 가지 뜻을 나타내는 데에 쓰인다. 역효과나 역선전에서처럼 접두어가 되면, 단어가 가진 본뜻의 거꾸로 또는 반대를 나타낸다.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모순되고 불합리하지만 그 속에 진실을 담고 있는 말도 자주 사용한다. 살다 보면 어떤 일을 거슬러 행해야 할 때도 많고, 거슬러 행해서 더 좋을 때도 많다.

물구나무서기는 내가 수십 년 동안 해오는 운동이다.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몸놀림을 경첩하게 해주며, 신경계통을 단련해주는 고도화된 운동. 피가 머리로 몰려 정신을 맑게 해주며, 평생 놀러만 사는 하체의 내장들에게 잠시나마 위로 올라가 있는 맛을 느끼게 해준다. 사물도 거꾸로 서서 보면 달리 보인다.

치과의사에게 주의를 받을만큼 나는 전형적인 오른손잡이이다. 왼손을 거의 쓰지 않으며 살았던 것이다. 다른 나라 교수나 조교들이 글씨를 왼손으로 능란하게 쓰는 것을 보고 놀란 적도 있다. 몸의 균형이 깨진 우스꽝스러운 늙은이의 모양새가 되고 싶지 않아서, 나는 지금 의도적으로 몸의 왼쪽을 더 많이 움직여주는 한편 오른손이 하는 일 대부분을 왼손에게 맡긴다. 당장은 능률적이지 못할 망정 자주 일을 시키다 보면 왼손도 자잘한 일에 익숙해질 것이라 믿으며.

장작도는 “시인이란 항상 참말만 하는 거짓말쟁이다.” 라고 했다. 시는 거짓말로 참말하는 기법을 사용하는 언어 예술이라는 뜻이라나. 우리는 평소에 역설적인 일도 하고, 역설적인 말도 거리낌 없이 사용한다. 무언으로 항변하고, 즐거운 비명을 지르며, 소리 없는 아우성에 귀를 기울인다. 봄나들이나 친정나들이는 우리 말에서나 볼 수 있는 표현이다.

나는 우스개를 좋아한다. 망원경을 거꾸로 들여다 보는 것과 같은 해학은 주관을 섞지 않고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방법 중의 하나다. 유머는 대부분이 허구지만 뇌세포를 일깨우는 것들도 흔하다. 놀라운 것이면서 매우 진지한 것일 수도 있다. 재미있으면서 인간사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담고 있는 우스개는 나를 사로잡는다.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사회의 통념 가운데는 잘못된 것이 너무 많아, 웃음으로 날려버리지 않으면 몸에 해로울 수도 있다.

무심코 대하는 것들이 거꾸로 기법으로 만들어진 경우도 많다. 높은 곳으로 뛰어오르는 영화의 장면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뛰어내리는 장면을 촬영한 다음 거꾸로 프린트하여 만든 역모션이다. 해수를 담수로 만드는 데에도 역삼투압법이 사용된다. 이치에 닿지 않는 것을 신불에게 빌다가 도리어 벌[逆罰]을 받는 수도 있으니, 꿈속에서라도 행여 그런 짓을 할까 조심해야 한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꾸로는 뒷걸음질이다. 뒤로 걸으면 앞으로 걸을 때 사용하는 근육과는 다른 근육이 사용되어 몸에

이롭다. 나이 든 사람이 몸의 균형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된다. 무거운 짐을 지고 긴 행군을 하면 엄지발가락이 부르트 물집이 생긴다. 물집이 터지기 전에 거기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주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뒷걸음질이다. 효과가 좋아 오래 전부터 미국 육군에서 사용되고 있다. 걸으면서 하는 명상은, 몸을 바로 하고 선 다음 시선을 발끝에서 3~4미터 앞에 둔다. 고개를 숙이면 피곤해지므로 턱을 들어 바르게 한다. 손을 앞이나 뒤로 모아 잡아 흔들리지 않게 하고 천천히 자연스럽게 걸으면서, 내딛는 발의 동작과 감각을 주시한다. 나는 이 명상에 뒷걸음질을 접목하여 마음을 다한다.

의학은 오래 전에 뇌의 기능이 좌뇌와 우뇌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아냈다. 좌뇌는 이성과 논리에, 우뇌는 표현과 직관에 관여한다. 고대 인도의 종교적 실천법인 요가에는 두 뇌를 밀접하게 연관시켜 균형을 이루게 해주는 운동이 있다. 프라나야마라고 부르는 호흡법으로, 조용한 곳에 앉아 5분 동안 엄지와 가운데손가락으로 양쪽 콧구멍을 번갈아 막으면서 내쉬었다가 들이쥔다. 호흡은 자연스러워야 하지만 반드시 날숨이 먼저이어야 하고, 약간 느리고 깊어야 한다. 아침 5분의 이 운동은 하루 동안의 내 호흡을 규칙적이게 하면서 신경계통을 진정시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일상 하는 숨쉬기가 아닌 이 숨쉬기는 몸과 마음에 다 같이 이롭다.

몸은 오래 전에 반환점을 통과하여 쇠퇴하고 있지만,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 도행을 못할 것도 없을 터. 거꾸로 비치는 사물의 형상이 더 황홀할 때도 많다. 얼마가 될지 모르는 여생, 이제부터라도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의심해보고, 평생 동안 얻은 지식도 상상력으로 뒤엎으며 살고 싶다. 김삿갓처럼 때로는 물에 비치는 구름이나 산의 모습도 마음껏 즐기면서.

네모진 소나무 밥상 위에 죽 한 그릇
하늘 산 구름 그림자가 함께 떠도는구나
주인장이여 행여 무안해 마시오
물에 거꾸로 비친 청산을 내가
아주 좋아한다오 ■

四角松盤粥一器
天山雲影共徘徊
主人莫道無顏色
吾愛青山倒影來



영국에서 소개되고 있는 조지아 오키프와 뉴멕시코



영국 런던에 있는 국립미술관중에 하나인 테이트 모던 미술관 (Tate Modern Museum)에서는 지난 7월6일부터 10월30일까지 미국의 여류화가 조지아 오키프(Georgia O'Keeffe)의 그림 100여점을 전시하는 특별전시회가 진행되고 있다.

조지아 오키프를 회고하는 이 전시회는 100년전 1916년 뉴욕의 '291'갤러리에서 조지아 오키프의 첫 작품이 전시된 때로부터 1960년대에 이르기 까지 기간에 그려진 조지아 오키프의 작품 100여점을 모아서 테이트 모던 미술관의 13개 전시실을 동원시켜 전시하는 보기드문 특별 대전시회다. 조지아 오키프는 미국에서는 잘 알려진 여류미술가이지만 미술역사가 깊은 유럽에서는 미국에서 만큼 잘 알려진 화가는 아닌것 같다. 특히 영국만 해도 국립 미술관중에 조지아 오키프의 작품을 소장한 미술관이 하나도 없다는 점은 이런 사실을 뒷바침 해준다. 영국 런던에 있는 테이트 모던 미술관의 Frances Morris관장은 이런점을 잘 인식한 사람이다. 그가 테이트 모던 미술관의 최초의 여성 관장이어서 인지는 몰라도 유럽 미술계의 각광을 받지 않은 여성 화가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미술계에서 여성 화가의 공헌은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한게 사실이다. 우리 미술관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은 그들에 가려져 있어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지나쳐버린 우수한 화가의 작품을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널리 알리고저 한다"라고 말했다.

조지아 오키프는 뉴욕에서 활동하던 화가였다. 1929년 뉴멕시코 타오스에 처음 와서 그곳에 살고 있었던 마벨 다지 루한(Mabel Dodge Lujan)의 집에 기거하면서 뉴멕시코의 풍경에 매료되어 이곳의 경치를 그리기 시작했고 1934년에는 산타페 북쪽에 있는 Abiquie의

Ghost Ranch지역에 있는 집을 작만하여 이사를 하고 정착해서 작품활동을 계속했고 1986년 98세에 생을 마감하기까지 뉴멕시코의 자연을 사랑했던 화가다. 런던에서의 이번 전시회는 그녀의 그림만 소개되는데서 끝이지 않고 그의 생애가 상세히 소개되었고 그림에 배경이 된 뉴멕시코 풍경도 자연히 널리 알려지는



Pederal Mountain (Credit:2016 GOK Museum/DACS, London) BB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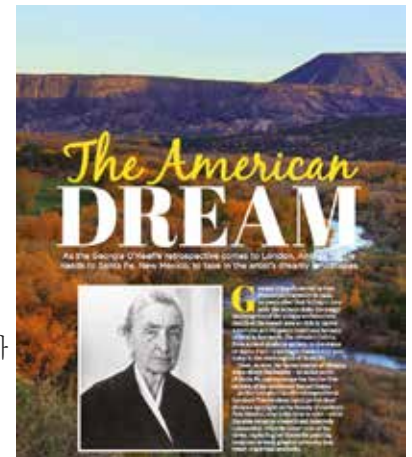
Road to Pederal, (Source:The Telegraph 2016-9-5,)



BBC.COM에 올린 Pederal산 경치. Georgia O'Keeffe는 유언으로 자신의 재를 산위에 뿌려달라고 했다. 그만큼 이 페디날 산을 사랑했다.

기회가 되었다. 영국의 국영 방송사인 BBC에서는 이번 전시회와 때를 같이해서 BBC Imagine Series의 하나로 조지아 오키프의 생애를 소개하는, "Georgia O'Keeffe: By Myself"란 제목의 다큐멘타리를 제작해서 방영했다. BBC 방송기자가 조지아 오키프가 살았던 뉴멕시코 Abiquie와 Ghost Ranch에 와서 주변 경치를 촬영하였고 조지아 오키프의 작품속의 경치와 실제 오늘의 경치와 비교하며 설명해주기도 하고 그녀의 생존시에 찍었던 영상자료를 종합하여 64분의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다큐멘타리는 유튜브에서 Georgia O'Keeffe: By Myself를 검색하면 시청할 수 있다.

전시회 덕분에 신문 잡지를 통해서도 조지아 오키프 소개가 많이 되고 있다. 영국에서 발간되는 여행 안내 잡지인 Good Things Magazine의 Travel and <9페이지에 계속>



Chama River Vallley경치와 오키프 사진



Sky Above Clouds란 구름을 그린 추상화와 샌디아산과 하늘의 구름을 비교하고 있다. (출처:Travel and Culture, Anthea Gerrie)

코윈 뉴멕시코 지회 안내

벌써 선선한 날씨에 옷을 여미는 가을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너무 덥다고 아우성치던 때를 어느새 무색하게 만드는 계절변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절각색의 아름다움과 이치를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아직 코윈이 생소한 이름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코윈은 한국정부가 여성가족부산하에 세계 한민족 여성네트워크의 활성화로 세계속 한민족 여성의 권익향상 및 국가 경쟁력확보를 취지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한국정부의 산하에 있지만 각국과 각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지역사회와의 도움과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뉴멕시코지회는 2013년 정풍자초대회장님을 1대로 현재 제가 2대회장으로 역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문인이 아니라 회원이 될 수 없다 하시지만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여성권익을 위해서 일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누구라도 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상반기에는 한인회노인회봉사와 Ronald McDonald House Charities of the Southwest에서 운영하는 타주에서 온 환자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8월 24일부터 8월 26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되었던 제 16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KOWIN)대회에는 뉴멕시코지회대표로 윤태자 총무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오는 10월 8일에는 캘리지 앤 커리어 페어를 통해 차세대 대학진학과 진로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주므로써 차세대를 위한 멘토링기회와 네트워크를 통한 차세대인적발굴과 더불어 한민족연대강화의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장소는 UNM Student Union Building, LOBO A & B 에서12시에서 4시까지 열릴 예정이며 장학금 수여와 의사, 약사, 교수, 엔지니어, 회계사,

박광종

KOWIN 뉴멕시코지회장
PhD



변호사, 군인등 전문인들과 뉴멕시코대학교관련인사들과의 상담을 통한 대학교와 진로상담의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혹시 차세대를 위해 자신의 직업과 경험에 대해 참여하고 싶으시거나 추천하실 분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정된 정원이기때문에 참석할 학생과 부모님들은 미리 이메일 (bell@unm.edu)이나 전화 (505-400-9813)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스낵과 음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뉴멕시코 지회 코윈 장학금은 재외동포 차세대 우수 인재를 발굴, 멘토링 기회를 수여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나라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 육성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학금신청자는 자신이 한국인으로 향후에 어떻게 지역사회와 글로벌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지와 한국인으로써의 경험과 계획에 대해 300자이내로 자기소개서를 내면 됩니다. 에세이가 아닌 자기정체성에 관련한 그림이나 작품으로 자기소개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2016년 하반기사업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육, 문화, 건강 등에 대한 세미나와 뉴멕시코에 있는 여성단체들, 특히 피난민여성과 집이 없고 마약중독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여성들을 위한 단체, Global pathways for Women works with refugee families 과 Crossroads for women,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자 김치바자회와 핸드백바자회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 8페이지에서 계속> 조지아 오키프와 뉴멕시코

Culture 에서는 뉴멕시코에 와서 취재한 Anthea Gerrie기자가 쓴 "The American Dream"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었다. 이 기사에서는 화가의 그림과 차마강, 고스트랜치, 샌디아산, 타오스 교회등 뉴멕시코경치를 조지아 오키프의 그림과 함께 소개했다. 영국의 The Telegraph 신문에서도 "Pedernal 산으로 가는 길"을 포함하여 여러장의 조지아 오키프의 그림을 소개했다. 전시회 포스터에 쓰인 "Jimson Weed, White Flower No 1" 작품이 미화 4천440만불에 매각된 기록도 소개했다.

조지아 오키프가 세상을 떠난지 30년이 되었지만 그의 그림과 함께 뉴멕시코의 아름다움이 영국에서도 소개되고 있음을 보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을 다시한번 더 실감한다. 그리고 예술가의 눈에 비친 이곳 뉴멕시코의 자연미를 우리도 체험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한다. (글: 편집부-이경화) ■



BBC Documentary
"Georgia O'Keeffe:
By Myself"에서
타오스 교회 현재
모습과 작품속의
교회를 비교해
준다.
(Video Capture
from BBC
Documentary
Imagine:
GOK By Myself)



Church at Rancho
de Taos

민족의 얼 - 광복절 (8.15)

매년 이맘때가 되면, 한인회를 비롯해서 각 단체에서는 광복을 기념하는 갖가지 행사들을 치루느라 몹시 분주하다.

음악회를 비롯해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소개한다는 명분으로 각종 풍물놀이는 물론, 심지어 굿판까지 벌이면서, 많은 동포들에게 잠시나마라도 즐거움을 주려고 애쓸 뿐만 아니라, 주류사회는 물론 많은 타민족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한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과연 이런 행사들이,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이며, 어떤 의미를 보여주느냐 하는 것이다. 특히 자라나는 1.5세 2세대들이, 먹고 즐기고 신명(?)나는 놀이 외에, 무엇을 보며,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을까?

36년간이나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고, 온갖 박해 속에서 언어도 이름도 빼앗긴 채,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들은 이름 모를 오지의 전쟁터로 끌려 가야했고, 금지옥엽 키운 딸은 금수와 같은 침략자들의 성적 노리개가 되었으며, 코흘리개 어린 꼬마들에게까지 마구의 풀을 뜯어 오게 하고, 낫손가락까지 빼앗아 포탄을 만들었던, 그들 침략자들은, 뉘우침은커녕 오히려 전쟁을 미화하며, 전범들이 묻혀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보라는 듯이 참배하는 오늘의 이 현실 속에서, 놀이 문화만으로, 이 광복의 의미를, 붓물처럼 터져 나온 감격의 그 해방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광복절은 단순한 해방의 의미를 넘어, 반만년 역사 속에 흐르는 민족의 혼이 응집되어 빚어낸 하나의 결정이요, 가슴속에 있는 민족정신이 기도가 되어 쟁취된 자주적 독립의 송고한 날이다.

또한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나라 없는 망국의 서러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기 한 목숨 분토와 같이 버린, 위대한 조상들의 한 맺힌 피의 값이다.

한 나라의 사상과 가치는, 그 나라가 걸어 온 역사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비록 그것이 부끄럽고 자랑스럽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찾아야 하고, 민족의 가치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의 후손들이



오형철

남가주평안교회
은퇴목사

뜻뜻하게 주류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

자기 주체성과 민족의 정체성 없이, 남의 나라 가치를 결코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곳 흑인들이 그렇게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다수가 가난하고 소외된 삶을 사는 것도, 바로 그들에게 놀이문화는 있을지라도, 민족정신 즉 뿌리 되는 자기 정체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민족 시인 심훈 선생은, 해방을 염원하며 이렇게 노래했다.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그 날이 온다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무슨 한이 남으리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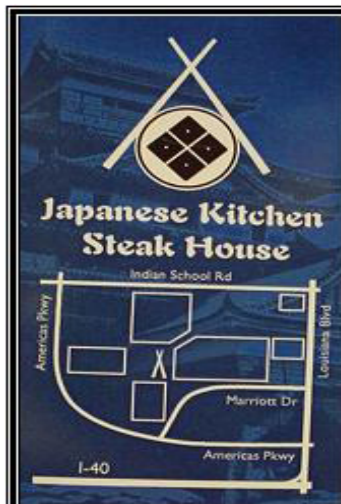
오늘 우리들 중에서, 과연 누가 머리로 받아 종로의 인경을 울릴 자 있는가?

눈물보다 더 진하고, 통곡보다 더 애절한 이 절규를, 진한 우리의 가슴으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흥겨운 민속풍물 놀이와 먹거리의 즐거움만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들의 2세대들에게 송고한 이 감격의 광복이 설명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꿈틀거리는 민족의 얼 - 광복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자, ■

글쓴이소개: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개척했으며, 풀러튼 ‘남가주 평안교회’를 담임한 후 은퇴했다. 베데스다 신학대학원 (당시 총장 조용기목사)을 졸업했다. 대학원에서 수학시절 본 교회의 현용규 목사님과 3년간 동문수학했다.



Japanese Kitchen

제페니즈 키친

일본인이경영하는 일식 정통집

일본 정식 (5코스:30불, 6코스:40불, 8코스:50불)

모듬정식(벤토), 해물우동, 튀김 우동,

닭고기정식, 고등어정식, 콩치정식, 연어정식

그외 일본 정통음식

(대만) 야끼전문, 고기종류와 해물 외 다수

www.japanesekitchen.com

Phone: (505)884-8937, (505)872-1166

6521 Americas Parkway NE ABQ

Japanese Kitchen
Sushi & Japanese Cuisine6511 Americas Parkway NE
Albuquerque NM, 87110Phone: 872.1166
Fax: 884.8938www.japanesekitchen.com

매일 마시는 물



김준호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장로

우리는 매일 물을 마시면서 별로 신경을 안쓴다. 왜냐 하면 세상에 널려 있는것이 물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설에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아 먹었다는 말이 있다. 정말 그랬을까? 그런데 미국에서도 tap water 를 plastic bottle 에 넣고 purified 라고 하며 판다는 소문이 있다. 우리들은 무조건 bottled water (BW, 생수 또는 먹는 샘물)가 좋을것이라는 선입관이 있어서 bottled water 를 찾는다. 시장에 가서 보면 그종류가 너무 많아서 눈이 어지러울 정도다. 여러분들은 어느 상표의 BW 를 마시나요?

물은 과학공부를 한 사람이면 물 분자가 H₂O 라고 안다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한개로 구성되었다는 말이다. 내가 몇주전에 새벽 예배때 “생기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다.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인간을 창조 했는지를 설명했었다. 창세기에 만물이 창조된 순서를 보면 첫째 날에 빛, 둘째 날에 궁창과 물을 만드셨다. 다시 말하면 생기와 물을 먼저 만드셨다는 것이다. 만약 첫째날부터 아담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 넣었다 면 무언가 앞뒤가 안맞는듯 하다. 그러나 창조론은 과학적 근거에 맞게 진행된것이다. 또한 아담이란 이름도 흙이라는 뜻이 있다고 한다.

왜 물이 하필이면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었을까?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다. 그래도 우리 인간이 물의 구성요인을 찾아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어떤영양학자는 사람이 하루에 물 8컵을 마셔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이 도대체 인체에 들어가서 하는역활이 무엇이며 물이 노화 과정에 어떤 일을 하는지를 미숙하지만 알아 보고자 한다.

어떤 사람이 마이크로웨이브에 끓였던 물을 화분에 계속 주었더니 꽃나무가 죽었다는것이다. 좀 이상한 이야기다. 또 물고기가 물속에 있지 않고 땅위로 건져내면 죽는다. 전자는 물을 끓이면 물속에 녹아 있던 산소들이 모두 증발해서 죽은 물을 계속 주니까 꽃나무가 죽은것이고 후자는 공기중에 너무 산소가 많아서 질식해 죽는것이다. 내가 설교했을때 말했던

바와 같이 이지구가 100 % 산소만으로 궁창이 창조되었더라면 지구는 먼 옛날에 폭발 되었을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듯이 전지전능하시다고 알고 있지 않은가 !!! 꼭 맞는 말이다.

여러분들은 매일 어떤 브랜드의 물을 마시고 있나요? 아니면 이래도 한세상 저래도 한세상 뭐 골치 아프게 물까지 신경 쓰며 마셔야 할까요? 그런 분일수록 이 글을 주의 깊게 읽어야 될줄 안다. 만약 여러분이나 가족 친척중에 혹시 불치의 병으로 고생한다면 어찌겠느냐는것이다. 물이 그렇게도 사람의 생명을 좌우한다? 우리가 알듯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싶지 않다. 다만 우리에게 알려진 것들을 말해 보고자 한다.

우선 pH 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것은 모든 용액안에 수소 이온(ion) 이 얼마나 되는지를 말해 주는데 범위는 0에서 14 까지 인데 pH가 7 일때는 수소 ion (H⁺) 과 OH⁻ 이온이 반반일때 중성이라고 하고 7 보다 작을때 산성, 7 보다 클때 알칼리성이라고 말한다. 사람의 피는 pH 가 7.365 가 될때 제일 최적한 수치인데 사람이 산성음식이나 알칼리성 음식 또 어떤 물을 마시느냐에 따라서 피가 최적치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이 100 % 맞는다고는 장담할수 없다. 왜냐 하면 사람은 개개인이 모두 꼭 같은 장기를 가지고 있지만 각자의 pH 레벨이 다 다르기때문에 5.5 가 되는 수치를 가진사람만을 상대로 꼭 같은 음식을 먹게하고 실험을 한다는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 그렇지만 대략적인 설명은 될것이다. 그리고 pH 는 logarithmic 이기때문에 pH가 8 인 용액은 7 일때의 것보다 10 배가 알칼리성이 있다는것이고 9일때는 알칼리성이 100 배가 되는것이다.

도대체 활성산소, Free radical (FR) 은 어떻게 생선되며 어떤 영향을 인체에 미칠까? 활성산소는 산소 원자나 분자의 외각 궤도에 있는 6 개의 전자중에서 하나가 빠져 나가서 만들어

A-1 한국식품

한국음식카페 CAFE

A-1 ORIENTAL MARKET

日本の食品

Mon-Sat 10:00am-7:00pm
Closed on Sunday
(505) 275-9021

Website: www.a1orientalmarket.com
www.facebook.com/a1orientalmarket/
몽고메리/산페드로 코너

6207 Montgomery Blvd. Albuquerque NM 87109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87109
phone (505) 797-8000
fax (505) 797-4090

www.abqsushiandsake.com

Lunch
11:30-2:30 Mon-Sat

Dinner
5:00-9:30 Mon-Thur
5:00-10:00 Fri-Sat
12:30-8:00 Sunday

지는데 이런 FR 은 다른 분자나 원자와 싸워서 전자를 빼앗기도 한다 그래서 계속 연쇄반응을 이르게 된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수 없는 수수께끼는 매일 필요한 산소 자체이다. 산소가 체내에 흡수되어 energy 를 생산하는 그때 FR 이생산되고 담배를 피우거나 smog 로 부터도 생긴다. 체내의 여러 원자나 분자들이 FR 의 공격을 받으면 세포를 망가 뜨리고 많은 병을 유발한다, 하지만 antioxidant (AO)가 체내에서 생산되고 AO 가 많이 들어 있는 음식을 섭취하므로서 FR 을 중화 시켜 이싸움에서 이길수 있다고 말한다. 이 FR 이 너무 많아서 체내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간에서 자리잡고 서식하면 간암이 생길수 있고 취장에서 짹적거리면 췌장암이 일어날수 있다고 한다 대장에서는 대장암 등등 여러가지 불치병이 생긴다. 그런데 이 암세포는 한부분에만 고착되어 있지 않고 여기저기 왔다갔다하며 암세포를 뿌리고 다니기때문에 이 FR 를 중화시키는 대처방안을 세워야 한다. 많은 영양학자들은 AO 가 많이 들은 과일과 채소를 추천한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연적으로 인체의 pH 가 서서히 산성쪽으로 진행된다고 말하는데 이것을 노화 과정이라고 한다. 이 pH가 5.5 근방에서 FR이 잘 생선된다는 보고가 있다.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다 알았으니까 이것을 정지시키거나 pH 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수는 없겠느냐는것이다. 그대답이 있다고 주장하는 영양학자도 있는데 사람의 체질이 천차만별이기때문에 100% 이것이다 라고 장담할수는 없다.. 우리가 숨을 쉬면 산소가 폐에서 흡수되어 피와 함께 모든 부분으로 전달되는데 피의 pH가 산성일때는 수소 이온과 산소가 결합하여 물이되어 목적지까지 산소가 많이 도달하지 못하고 마는 경우가 생긴다는것이다. 산소가 제일 많이 필요로하는 두뇌에 도착하지 못하고 도중하차하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것이다. 치매라던가 기억상실증 등이다.

예를 들어보자 쇠 파이프 나 철창문 또는 쇠로만든 그릴을 오래동안 집밖에 두고 햇빛, 공기, 비등을 맞으면 자연적으로 쇠가 녹스는것을 보게 된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산화작용이라고 한다. 이 산화 작용은 시간이 길면 또는 기후변화가 심하면 가속화 된다.이산화작용을 막기위해서 표면 처리를 해서 산화작용을 막는다. 마찬가지로 우리인체도 산화작용이 계속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것을 위에서 지적했듯이 노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인체에서 일어나는 이과정을 완전히 정지시킬수는 없고 지연시킬수 있다고 영양학자들이 말한다. 알칼리성 물을 마시면

물맛이 씹쓰름하다고 어떤분들은 싫어한다. 그러나 맛이좋다는 물은 잘못 택하면 산성물일수도 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인체에서 제일 중요한 기관이 뇌라고 한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지성이나 감성이 뇌에서 좌지우지하기때문이다. 우리 코로 들어마시는 산소의 30 % 가 뇌에 공급되어야 건강을 유지한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인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기관들이 모두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것 하나 무시할 수는 없지만서도 그중에서 둘째로 중요한 기관은 위라고 한다. 우리가 매일 음식을 세번씩 먹는다. 이위에서 음식을 먹고나면 음식이 분해되어 소장대장을 거치면서 흡수가 된다. 위에는 이음식을 소화시키는과정에 위액이 분출되는데 이 위액이 pH 가 2에서 4 정도되는 염산인데 이런 강한 염산이 나와도 위벽이 멀쩡하게 견디어내는것이 신비하다는것이다. 이신비한 사실을 좀자세히 알려고 많은 의학박사나 생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내용을 우리 보통사람이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왜 이런 최고로 강한 염산이 필요할까 궁금하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중에는 간혹가다가 우리몸에 필요없는 미생물이나 또는 병균이 흡수될수가 있는데 이런것들을 살균하는 역할을 이위액이 감당한다는것이다. 또한 음식물을 분해하는 역할도 하는것이다.

아래 도표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BW(생수)의 산도를 보여 준다. 널리 알려진 것중에

Aquafina,
Daisani,
Arrowhead
는 산도가
높은것을
알수있고 Fiji,
Nestle, Evian
등은 알카리
성이 높다.
입맛에 딱
맞는물만 이
좋은 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Bottled Water Alkalinity and Acidity, pH

Propel Zero	3.5	Dear Park	7.8
Aquafina	5.5	Pentar	7.8
Daisani	5.6	Evian	7.9
Arrowhead	6.8	Real Water	8.0
Poland Spring	7.2	Eternal	8.1
FIJI	7.3	Icelandic	8.4
Nestle Pare Life	7.3	Evamor	8.8
Volvic	7.5	Essentia	9.4
Voss	7.6	AlkaLife	10.0

Mi Kyong Kim
Mortgage Banker
NMLS #512561

BANK OF ALBUQUERQUE
MORTGAGE

3900 Vassar Dr NE
Albuquerque, New Mexico 87107
www.bankofalbuquerque.com/mikyongkim
E-Mail mkim@bokf.com
Direct 505.855.0586
Mobile 505.379.2944
Fax 505.855.7301



김미경

주택융자를
도와드리겠습니다

Acupuncture & Herbs Pain Clinic
Holistic & Alternative Medicine



장상순 한의원

Dr. Sangsoon Chang

DOM, DSOM, Dipl OM, Dipl Ch, Lac

보험회사 Authorized Providers:
Cigna, Presbyterian, Multiplan, Optum,
United healthcare, New mexico health
connection, Out of net work, Molina.

2617 Juan Tabo NE #B
Albuquerque
New Mexico 87112
www.drchang505.com

505-255-0878
505-710-7504
sangsoonc@gmail.com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출판한 '견우와 직녀의 행복한 미국생활(부제:미주 생활 가이드북)'은 재미 동포에게 필요한 이민, 교육, 의료, 연금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본지는 연속 시리즈로 가이드북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편집부)

2-2 정부 생활 보조금



김길동, 최심정 부부는 딸 내외의 초청으로 미국에 이민온 후 세탁소를 운영하느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쁜 딸 내외를 위해 두 외손녀, 콩쥐와 팥쥐를 돌봐주며 세월을 보냈다. 이제는 훌쩍 커버려 16살 18살이 되어 오히려 영어가 어려운 두 노부부가 자신들이 키운 외손녀들로 부터 이런저런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서 들고 온 재산도 없고 그렇다고 교회 친구 이온달, 조평강씨내외처럼 일찌감치 이민을 와 사회생활을 해서 퇴직금이나 65세 이상의 연장자들을 위한 건강보험인 메디케어도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훌쩍70세가 넘어 여기저기 아픈 곳도 하나씩 늘어가지만 매년 병원을 갈 적마다 딸 내외에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아 병원가는 것도 망설여지고, 중년의 딸 내외랑 함께 사는 것도 미안하지만 미국 사회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아는 지인의 소개로 한인 복지 기관의 사회복지사를 만나게 되었다. 비록 미국에서 일을 했었던 경험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사회복지사로 부터 들었다.

전문가의 한마디

생활 보조금(Social Supplementary Income, SSI)

생활 보조금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적고 자산이 거의 없는 사람에게 매달 지급됩니다.

- 65세 이상이거나
- 시각 장애인
- 기타 장애인

생활 보조금 혜택자가 되려면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특정한 자격요건을 맞추는 비시민권자이어야 합니다.

생활 보조금 수혜대상 자격 비시민권자는 1996년 8월 22일 이전 미국에 들어온 분들중 미국에서 총 40 근로 크레딧을 가진 경우 (본인 배우자 및 부모의 근로 크레딧 또한 이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96년 8월 22일 또는 그 이후에 미국에 입국하신 분들의 경우 총 40 근로 크레딧을 가진 영주권 5년 이상의 자격을 갖춘 분들입니다. 생활 보조금 자격의 여부는 이러한 이민 자격뿐 아니라 수입과 자산기준에 맞춘 이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수입

수입은 임금, 사회 보장 혜택 및 연금 등 개인이 받는 돈을 말하며, 식량이나 거주 장소등도 수입에 속합니다. 생활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월 수입액의 한도는 주에 따라 다릅니다. 기혼자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수입과 자산이, 스폰서가 있는 비시민권자의 경우에는 스폰서의 수입과 자산도 포함됩니다. 다음의 항목들은 수입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 귀하가 받는 월간 수입에 대해 20 달러까지
- 월간 근로 수입 65달러까지, 65달러 초과분에 대한 절반의 금액
- 푸드스탬프로 알려진 보충영양지원 프로그램 (SNAP)급여
- 민간 비영리 단체에서 제공하는 거주 공간

자산(소유한 모든 것)

자산에는 부동산, 은행잔고, 현금, 주식 및 채권등이 있습니다. 1인 가정의 경우 자산 가치가 2,000 달러 미만이거나, 부부 합산 자산이 3,00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생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 매각이 진행 중일 때에도 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살고 있는 주택과 부지
- 액면가 1,500 달러 미만의 생명 보험 증서
- 승용차
- 귀하와 귀하의 직계가족 묘자리 <14페이지로 계속>

미술 시리즈

검은 피카소 “장 미셸 바스키아”

1. 불꽃처럼 살았던 짧은생애

장 미셸 바스키아(Jean-Michel Basquiat)는 1960년 미국 뉴욕에서 아이티 이민자 아버지와 푸에르토리코계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7세 때 교통사고로 비장을 제거하였다. 1970년대 시티에즈스쿨을 다니면서 만난 친구와 함께 SAMO(same old shit)를 만들어 그래피티(graffiti, 스크래치 또는 스프레이로 그린 그림 혹은 낙서)를 남기기 시작한다.

1980년대 미국에서 하위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바스키아의 작품도 유명해졌다. 1981년 갤러리아 오르테 에밀리오 마촐리(Galleria d'Arte Emilio Mazzoli)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으며, 최연소로 카셀 도큐멘타(Kassel Documenta), 휘트니 비엔날레(Whitney Biennale) 등에 참여한 바 있다.

서명 대신 왕관을 그려 넣는 것으로 유명하며, 백인우월주의를 비판하는 작품들을 남겼다. 주요 작품으로는 <피렌체>, <천국>, <재즈>, <도넛의 복수> 등이 있다. 작품성을 인정받아 ‘검은 피카소’라는 찬사를 받으며 8년 남짓 작품 활동을 하였지만, 1980년대 후반 대중의 관심이 뜸해지자 슬럼프를 겪으며 마약 중독자가 된다. 결국 1988년 28세의 나이에 코카인 중독으로 요절하였다. 1996년 줄리언 슈나벨(Julian Schnabel) 감독은 그의 드라마틱한 삶을 영화 <바스키아>로 제작한 바 있다.



장 미셸 바스키아



심유진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2. 낙서에 담긴 바스키아의 작품세계

.. 회계사였던 아버지보다는 미술에 조예가 깊었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세 살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손에 이끌려 브록클린 미술관 및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을 두루 다니며 미술에 대한 감식안을 높였다. 어머니는 그가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작가의 그림에 등장하는 주제 형성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 바스키아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해골 형태의 인물과 신체 부위들은 작가가 여덟 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어머니가 선물한 해부학 교과서 <그레이의 해부학(Gray's Anatomy)>의 영향



글렌 - 1984

<13페이지에서 계속> 행복한 미국생활

- 최대 1,500 달러까지의 본인 혹은 배우자 매장 기금

특정 시설에서 거주하는 경우

정부나 카운티에서 운영하는 요양소, 감호시설이나 기타 공공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생활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운영하는 수용 인원 16인 이하의 지역 거주 시설이나, 홈리스 긴급 보호 센터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생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또는 민간 시설에 거주하며 치료비의 반액 이상을 메디케이드 보험으로 충당하는 경우, 소액의 생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 보조금 신청 방법

생활 보조금은 사회 보장국 웹사이트인 www.socialsecurity.gov 에서 직접 신청하시거나, 수신자 부담 무료 전화인 1-800-772-1213 번을 이용해 사회 보장국 직원과 약속을 정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 혹은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대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생활보조금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사회 보장 카드 또는 사회 보장번호 기록
- 출생증명서 또는 나이를 증명할 기타 근거 자료
- 주택담보 대출, 임대 계약, 전기, 가스비 내역서 등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정보
- 급여명세서, 은행 통장, 보험증서, 매장 기금 기록 및 수입과 소유한 재산에 대한 정보
- 미국 시민권 증빙, 또는 유자격 비시민권자 지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수표장이나 기타 귀하의 은행, 신용조합 또는 저축 및 대출 계좌 번호 등이 기재된 자료

생활 보조금 승인이 된 경우에는 지급금을 자동 입금, Direct Express 카드 프로그램 또는 전자 이체 계좌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출처: www.socialsecurity.gov

<다음호에서는 메디케어를 소개합니다>

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작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신체 드로잉에도 매료되어 그의 드로잉 책을 독학하기도 했다.

바스키아의 작품의 주요 주제는 주로 길거리 문화, 카툰 캐릭터, 만화책의 주인공들 그리고 백인 중심 사회에서의 흑인의 지위에 관련된 것이 많았다. 이러한 주제들은 그의 작품 전반에 걸쳐 수많은 이미지와 다양한 재료들을 통해 표현되었다. 작가는 특히 흑인으로서 미국 사회에서 성공한 음악가 찰리 파커, 야구선수 행크 아론 등을 존경했는데, 이들은 그의 작품 속 주요 등장인물로 자주 나타난다. 바스키아는 이들이 고결한 영웅이자 현대 문화의 중요한 공헌자라 여겼고 그들의 생활, 업적, 그리고 시련에 대해 세세히 알고 있었다. 그는 그러한 정보를 이미지, 기호, 그리고 단어를 사용하여 작품에 표현하였으며 왕관을 그려서 그들의 중요성과 영웅으로서의 자질을 표현했다.



앤디워홀과 바스키아

1983년쯤 바스키아는 캔버스 크기를 극적으로 확대하여 그림을 그렸는데, 전체 구성과 내용을 위해 캔버스를 2개에서 8개까지 이어서 사용했다. 작가는 1982년 작에서 볼 수 있듯 나무 막대와 경첩으로 연결해 거칠게 만든 틀로 이어진 다수의 캔버스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와 더불어 정통에서 벗어난 재료와 테크닉을 사용했다. 그의 화면은 찢어진 종이를 겹쳐 구김이 가게 붙인 콜라주 기법으로 이루어졌다.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작품 화면에 바스키아는 주제를 암시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단어와 기호를 가미함으로써 깊은 정치적 의미를 담은 작업들을 만들어냈다.

바스키아는 지속적으로 논란을 일으킬만한 참조들이나 의미를 지시하는 단어들과 이미지들을 자신의 그림에 포함시켰다. 사회와 인종간의 평등에 대한 바스키아의 깊은 관심과 흑인 영웅들에 대한 그의 존경심은 현대미술에 있어 찾아보기 흔치 않은 독특한 인식세계를 보여준다. 바스키아는 수많은 스타일, 테크닉 그리고 주제들을 섭렵했으며 동시에 물질적 존재감을 넘어서는 생명력과 에너지를 그의 그림에 가득 채웠다.

3. 앤디워홀 과 바스키아

바스키아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다. 바로 앤디워홀이다. 바스키아가 막 성인이 되었던 시기는 미술사에서

가장 극심한 사조 통합의 시기였다. 전 세계의 국가가 그러한 것은 아니었지만 전쟁이 잠식되어지고 1960년대부터 일어난 젊은 층의 반발 심리는 극에 달했다. 미국에서는 수많은 침대들이 붓 대신 스프레이통 하나만을 들고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사회의 바닥에서 혼란의 물결이 일고 있기 이전에 미술계에서는 팝 아트가 공식적으로 활성화되어 대중과 예술이 상업 미술의 경계를 허물고 있었다. 앤디 워홀이 주를 이루던 1970년대 후반의 미술계는 이렇다면 ‘아랫물’과 ‘윗물이 만나기 직전’의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 두 강물의 통합이 이뤄지는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에 워홀을 묵묵히 자신을 길거리에 표현하던 흑인 화가 바스키아에게 고개를 돌렸다.작품마다 혁신적이라는 칭송과 거대한 스킨들을 동시에 흘뿌리던 앤디 워홀은 이미 스타 중의 스타였다. 워홀은 어린 바스키아보다 현저히 높은 위치에서 그를 내려다보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감은 없었다. 바스키아로서는 늘 꿈꾸던 거침없는 미술계의 첫 발을 인도해주는 아버지의 역할을 워홀에게 맡겼고, 나아가 든 워홀은 그런 바스키아의 젊음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둘은 함께 작업하기 시작했다.



죽음을 타고 -1988

바스키아의 성공은 그의 조력자들에 의한 탄탄한 마케팅에서 이루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앤디 워홀을 비롯해 브루노 비쇼프버거, 르네 리카도, 아니나 노세이, 디에고 코르테즈 등이 있다. 바스키아를 알아본 한 명의 작은 물살이 점점 더 커지는 파도의 물결처럼 바스키아는 점차 세계가 주목하는 작가로 떠오른다. 하지만 세간에는 앤디워홀이 바스키아를 이용해 유명세를 더하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바스키아는 매우 혼돈스러웠을 것이다. 무엇이 진짜인지 헷갈렸을 것이다. 앤디 워홀과 바스키아는 무척이나 가까운 사이였고, 워홀은 바스키아에게 있어서 정신적 지주와도 같은 존재였다. 이들은 예술적 성향 뿐만 아니라 각자의 관심과 취향까지도 공유하곤 했었다. 워홀은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함께 작업을 했지만 바스키아와는 좀 더 돈독



6.99- 1984(워홀과의 공동작)

지역소식

UNM대학 학위 취득자 수 예년보다 가장 높은 수준

뉴멕시코대학에서 발표된바에 의하면 지난 2015-16년도에 졸업한 학위 취득자 수가 예년에 비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학생수는 다소 저조한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졸업생 숫자는 증가추세를 보여주었다. 2015-16년도에 총 5,674명에게 학위가 수여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2014-15년도 학위 취득자 수 5,489명 보다 더 높은 숫자이다.



Chauki Abdallah 교무처장에 의하면 학위 취득자 증가 요인으로 여러가지를 들 수 있으나 가장 큰 요인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수 완화조치와 학생 후원 서비스 개선, 교수진의 노력 개선등의 결과인것으로 알려졌다. 종래의 128학점이 필요했던 학사학위 자격 조건을 120학점으로 최근에 낮춘바가 있다고 한다.

지난 학기에 학사학위 취득 숫자는 3,707명이었고 석사학위는 1,362명, 박사학위는 292명으로 모두 작년 보다 훨씬 증가된 숫자이다. 법과대학과 의과대학의 전문학위에서도 학위 취득자 수는 335명으로 전년의 313명보다 웃도는 숫자이다. 금년 가을 학기 UNM등록 학생수는 27,150명으로 추산 되고 있다. ■

자료출처: Albuquerque Journal 2016.9.2

샌디아 연구소 예산증액 전망



뉴멕시코의 경제에 큰 영향을 주며 미국 국방과학 연구에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샌디아 국립 연구소는 2017-2018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

될것으로 전망한다고 Jill Hruby연구소장이 지난 8월 24일 아침에 있었던 앨버커키 경제인 포럼에서 말했다. 금년 예산도 1억불이 증가된 29억불이었는데 FY2017년도 예산은 더 증가된 31억불로 잡혀있다고 했다. 증액된 예산은 잠수함 발사미사일 W88이라든지 공중발사되는 B61핵 폭탄 과 지상 발사 대륙간 탄도탄 MK21과 같은 기존 무기의 현대화 프로그램에 부분적으로 쓰일것이라고 했다.

에너지 관련 연구분야와 Cyber 방어체제같은 내셔널 안전 (Security) 프로그램에 관해서도 언급하길 온세상이 시끄러운 이때 연구소에서는 준비해야할 과제를 묵묵히 잘 수행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샌디아연구소의 현 직원수는 10,600명이며 계약회사 인력과 포스터닥터 인력을 합치면 600명이 더해진다고 한다. 지난 5년간 퇴직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약 3,300명의 새 직원을 채용했는데 이중 1000여명의 인력은 UNM졸업생으로 충당했다고 말했다.

FY2015년도 예산중 17억불 (예산의 약 61%)이 연구소 직원의 봉급으로 지출했고 9억8천만불은 외부 하청 계약에 사용되었다. 이부분에 있어서 약 38%에 해당되는 계약은 뉴멕시코주에 있는 회사와 체결했다고 한다.

연구소의 행정적 운영은 지금까지 록히드마틴 회사가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5년간의 운영을 맡길 회사를 금년 말에 재 개약을 하게 된다. 록히드 마틴과 보잉-바텔 두회사 팀이 입찰에서 경쟁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고 했다. 보잉-바텔사는 UNM 과도 파트너로 팀을 구성해서 입찰했다. 연말에 입찰의 승자를 Nuclear Security Agency가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

자료출처: Albuquerque Journal 2016.8.25

“의존할 가족이나 친구가 있나?..”

한국, OECD 회원국 중 ‘꼴찌’

최근의 한국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작성한 ‘OECD 사회통합지표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의하면 “만약 당신이 곤경에 처해 도움받기를 원할 때 의존할 가족이나 친구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라고 답변한 한국인의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고 24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OECD 사회통합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사회적 관계(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부문에서 10점 만점 중 0.2점을 받았다.

사회적 관계는 그 사회 구성원간에 상호 지지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곤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사람의 비율을 따져 산출된다.

이런 물음에 대해 한국인의 72.4%만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나머지 27.6%는 곤경에 처했을 때 주위에 도움을 받을 가족이나 친구가 없는 외로운 상태에 있다고 볼수있다.

한국인들 사이 이런 긍정적인 답변의 비율은 조사 대상인 36개 국가(OECD 34개 회원국 + 브라질, 러시아) 중 가장 낮아서 전체 평균인 88.0%보다 15.6% 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긍정적인 답변율이 높은 나라는 스위스(95.8%), 덴마크(95.0%), 독일(93.6%), 호주(92.0%) 등이었으며 미국(90.0%), 일본

(88.5%) 역시 평균보다 높았다.

한국은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터키(86.1%)나 칠레(85.0%), 멕시코(76.7%) 같은 중남미 국가들보다도 매우 낮았다.

OECD의 사회통합지표는 11개 부분에 대해 0~10점을 부여하는데 한국은 전체 평균 5.0점으로 OECD 평균보다 약간 낮은 ‘중간 수준 국가’로 분류됐다. 평균 점수가 높은 국가로 노르웨이(8.0점), 덴마크(7.9점), 스웨덴(7.7점) 등 북유럽국가가 있었고 멕시코(3.4점), 터키(3.8점), 칠레(4.5점)는 최하위권이었다.

한국은 교육(8.0점) 일자리(7.7점), 개인적 안전(7.6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일과 삶의 균형(5.0점), 삶의 만족(3.3점)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고 사회적 관계(0.2점)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

<15페이지에서 계속>

검은 피카소 “장 미셸 바스키아”

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앤디 워홀이 죽기 2년 전 1985년, 바스키아는 그와 함께 뉴욕에서 거대한 공동 전시를 기획하고 실행했다. 많은 기자들은 두 익살꾼의 만남을 기대하며 취재열기를 달아오르게 했지만 다수의 열광과는 달리 화려하게 열린 바스키아와 워홀의 전시는 처음으로 고배를 마시게 된다. 때문에 바스키아는 워홀과 멀어졌고 그 뒤로 둘의 작업은 좀처럼 찾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워홀과의 마지막 관계가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었

다고 해도 바스키아의 작가적 삶을 주로 이끌어 주었던 앤디 워홀의 사망 소식은 그에게 가눌 수 없는 충격으로 다가왔다. 워홀이 사망했던 1987년 2월 이후로 바스키아는 거의 모든 전시 계획을 중단한다. 그 이후 그림 한 점 제대로 그려내지 못하게 되어버린 그는 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사치와 쾌락에 빠져 하루하루를 허비하며 지낸다. 결국 워홀의 사망 1년 후인 1988년 여름, 바스키아는 뉴욕의 자택에서 코카인 중독으로 인해 사망하게 된다.

〈바스키아는 불꽃처럼 살았다. 그는 진정으로 밝게 타올랐다. 그리고 불은 꺼졌다. 하지만 남은 불씨는 아직도 뜨겁다.〉

위의 시는 바스키아의 애인이었던 수잔이 바스키아를 위해 장례식장에서 낭독한 시다. ■

뉴멕시코주 한인 교회 안내

교회안내는 Public Domain에서 수집된 자료입니다.
틀린점이 발견되면 편집부로 E-mail 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장로교회 (Albuquerque)

류종재 목사 (505) 385-6545 gbjjyo@hotmail.com
주일예배 시간: 오후 1:30 pm
영어예배 시간: 오후 12:00 pm
주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87112 웹사이트: home.kcmusa.org/disciples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김재태 목사(972)-822-1239
주일예배 시간: 10:30 am
주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한인 교회 (Los Alamos, Santa Fe)

김석훈 목사 (626)272-1042
주일예배 1부 시간: 11:30 am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시간: 2:00 pm
주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a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웹사이트: www.santafekorchurch.net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505)-803-7716
주일예배 (Korean Worship) 11:00 am (Sunday)
영어예배 (English Worship) 1:15 p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 11:00 am (Sunday)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회 5:30 am (Tue-Fri) 6:00 am (Sat.)
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웹사이트: www.kumcabq.com
www.facebook.com/kumcabq/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Albuquerque)

윤성열 목사 (505) 331-9584
주일예배 시간: 오전 9:00 am / 오전 11:00 am
새벽기도회 5:45 am (Tue-Fri)
수요 예배 매주 수요일 7:00 pm
주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신동완 파우스티노 사목회장
장재준 안드레아 총무/기획부장
주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87110
소공동체(화,오전), 성령기도회(수,저녁),
금요기도회(금,저녁)
웹사이트: cafe.daum.net/abq-catholic

주님의 교회 (Albuquerque)

The International Church of the Foursquare Gospel
김의석 목사 (505) 903-2297
주일예배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6:00 am (월~토)
성경공부 매주 목요일 10:00 am(교회)
*Women's English Bible study 격주 금요일 10:00am
*English Bible conversation group for young adults and UNM students 매주 일요일 1pm @ church.
주소: 12120 Copper Ave.NE,Albuquerque,NM 87123

클로비스 한인 순복음교회

이 성희 목사 (575-791-1453)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Clovis
405 Connelly St. Clovis, NM 88101

화밍톤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 (505) 453-5461
주일예배 시간: 12:00 am (한국어 예배) 1:00 pm (Indian 영어예배)
주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버커키 Albuquerque	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Kelly Liquors #10 4312 Coors SW (505) 877-2777	GEM X Imports 10701 Coors Rd. NW ABQ, NM 87114 (505-899-3420)	3315 Tower Rd SW ABQ (505-331-9584)
한국식품점 Korean Grocery	A-1 한식 Cafe 6207 Montgomery Blvd. NE (505)275-9021	Kelly Liquors #14 6300 San Mateo Blvd NE Suite R (505) 797-9966	J-1 Import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6 (505-839-8697)	주님의 교회 12120 Copper Ave NE ABQ (505-903-2297)
A-1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Blvd. NE ABQ (505-275- 9021)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BQ 87109 (505-797-8000)	Stadium Liquor 1306 Broadway SE ABQ, NM (505-242-8542)	NEXT Clothes/Gift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9-8627)	주택용자 Loan Officer
Arirang Oriental Marke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Yummi Hous 1404 Eubank Blvd NE, ABQ (505-271-8700)	부동산 Realtors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김미경 Mikyong Kim Bank of Albuquerque Mortgage 3900 Vassar Dr. NE (Office 505-855-0586) (cell 505-379-2944) mkim@bokf.com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건축/페인트 Painting	김영신 Yong Shin Kim: Prudential Realtors (505-321-7695)	Hair & Co(황경희) 5901 Wyoming Blvd., NE (505-797-8087)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	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Hair Dynamic(Ashley) 1500 Wyoming Blvd. NE (505-296-2335)	치과 Dental Clinic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공인회계사 CPA	세탁소 Dry Cleaners	Matthew Lee's Hair Style (홍정희)11901 Menaul NE (505-271-1056)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Asian Pear 508 Central SW, ABQ (505)766-9405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회계사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Barbone's Cleaners 3812 Carlisle Blvd NE (505-881-4466)	Nob Hill Barber Shop (Sunny)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리커스토어 Liquors	Executive Cleaners 1214 Juan Tabo Blvd. NE ABQ, NM 87107 (505-299-5858)	Plance Hair Salon(Tina) 4300 Ridgecrest Dr NW (505-907-9229)	태권도 TaeKwonDo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 899-0095)	Casa Liquor 1649 Bridge Blvd. SW (505)247-2525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Dynamic taekwondo acad- emy5850 Eubank blvd
I Love Sushi 6001 San Mateo Blvd NE (505-883-3618)	Kelly Liquors #2 5850 Eubank NE (505)291-9914	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505-266-3231)	자동차정비 Auto Repair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505) 271-2000
Jasmine Thai & Sushi House 4320 The 25 Way, NE Suite 300 (505-345-0960)	Kelly Liquors #5 6124 4th St NW (505) 828-1133	의류 Clothes	The Garage 자동차 정비 6441 western Trail NW (505-352-5152) 마이크 조 thegaragenm.com	한의사 Acupuncture
Korean BBQ 3200 Central Ave SE ABQ (505-338-2424)	Kelly Liquors #7 1418 Juan Tabo NE (505)292-4520	Best Outlet: 3300 San Mateo Blvd NE, ABQ (505-884-2202)	종교 Church	Dr. Chang: (장상순) 2917 Juan Tabo Blvd. NE #B, ABQ NM87112 (505-255-0878) sangsoonc@gmail.com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 296-8568)	Kelly Liquors #8 11816 Central SE (505) 299-3366	Dot Clothing Co: 7200 Montgomery NE Suite C, ABQ (505-830- 9400)	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BQ, NM 87110 (505-652-4627)	Dr. James D Park: (박달규)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6 87113 (505- 797-5400) East West Integrated Pain & Rehab Center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Kelly Liquors #9 1903 Coors SW (505) 873-4477	Dot Clothing Co 9601 Sage Rd. SW ABQ 87121 (505) 831-8812	갈릴리장로교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BQ, NM87112	화랑 Gallery
Samurai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 6601)		Fashion USA 201 San Pedro SE ABQ NM 87108 (505-255-0878)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601 Tyler Rd NE ABQ (505-803-7716)	Park Fine Art Gallery (박영숙): 323 Romero St. Suite 6 Old Town, Albuquerque NM87104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05-764-1900)

회원/원예 Nursery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

사진관 Photo

Star Image
6600 Menaul Blvd. C-4 Abq,
NM 87110
(505)883-3112

중재서비스

ADR-Media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

단요가 Dahn Yoga

알버커키505-797-2211
커튼우드505-792-5111
산타페505-820-2211
다운타운 505-262-2211
이스트마운튼505-286-3535
www.dahnyoga.com

라스베가스 Las Vegas

치과 Dentist

Sanchez Dental, LLC
Christopher J. Yoon, DDS
(윤종석)
711 6th Street, Las Vegas, NM
87701
(505-425-3435)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공인회계사 ACC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
5800)
(Fax 575-523-7700)

카페/선물 Cafe/Gift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
0098)

종교 Church

라스크루세스 침례교회:
780 Camino Del Rex, Las
Cruces, NM 88001
전화번호(505)-269-0691

병원 Clinic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
556-0200)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3850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22-4646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건강식품 Health Food

인성내추럴: Los Alamos
(505-662-9681)

종교 Church

산타페 한인장로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412 -5420)

리오란초 Rio Rancho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4300 Ridgecrest Dr. SE
Suite#O Rio Rancho, NM
87124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
8855)

버나리요/벨렌/ 보스키팜

Bernalillo/Belen/ Bosque Farms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408 Hwy 550W, Bernalillo,
NM87004
(505) 867-5838

Kelly Liquors
300 N Main st.
Belen, NM87002
(505) 864-2242

Kelly Liquors
395 Bosque Farms Blvd.
Bosque Farms, NM87002
(505) 916-5656

산타페 Santa Fe

변호사 Law Firm

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87502
(505)988-4476
jroh@cuddymccarthy.com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Osaka (Traditional Japa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

종교 Church

산타페 한인장로교회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87501
(505)412-5420
www.santafekorean.org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1
3875 Cerrillos Rd
Santa Fe, NM887507
(505) 471-2244

Kelly Liquors #2
2885 Cerrillos Rd.
Santa Fe, NM887507
(505) 471-3960

Kelly Liquors #3
4300 Cerrillos Rd.
Santa Fe, NM887507
(505) 471-3206

클로비스 Clovis

종교 Church

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Korean Full Gospel Church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91-1453)

백화점 Mart

T-Mart
320 B West 21st St.
Clovis, NM 88101
(575)218-3764

식당 Restaurant

Shogun Japanese Steak
House
600 Pile St.
Clovis, NM 88101
(575)762-8577

식품 Korean Grocery

K's Oriental Food Store
1508 Thornton st.
Clovis, NM88101
(575)762-8660

화밍톤 Farmington

종교 Church

화밍톤 침례교회: 511 W.
Arrington, Farmington (505-
453-5461)

상점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편집후기

“의존할 친구나 가족이 있나?”기사의 사회통합지표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인의 사회적 관계가 OECD
회원국중 꼴찌라는 것은 곧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고 소원해지는 사회로 변해
간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말하는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이곳 한인사회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역시 높은 점수 얻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인회와 여러 자선단체들 그리고 한인
교회와 함께 광야의 소리도 이런 면에서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편집위원장 이경화 voiceofnm@gmail.com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2016년 9/10월호

발행일: 2016. 9. 7.

발행인: 김기천 (Rev. Kee-Cheon Kim)

편집위원장: 이경화 (Kyong Hwa Lee)

출판부장: 권구자 (Koo-Cha Choy)

광고담당: 신옥주 (Ok-Ju Shin)

발행처: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출판부

Korean UMC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E-Mail: voiceofnm@gmail.com

(505)341-0205

<광야의 소리>는 페이스북과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보실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www.facebook.com/voiceofnm/

웹사이트: voiceofnm.kumcabq.com

The Garage AUTO REPAIR

**'앨버커키에 30년 경험의 한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소가 있습니다'**

2년 연속 앨버커키 저널 독자가 선정한 최고의 자동차 정비업소



모든 종류의 차량 정비 **최고의 실력을 가진 기술진**

일반 승용차에서부터 디젤 트럭까지 30년 경험의 마이크 조와 10명의 전문 기술진
고품질 부품만을 사용하여 믿을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정비

Fleet Services

무료 견인/견적

고객만족서비스

ASE Certified Master Technician
각 분야별 전문가
(전기, 유압, 차, 일본 차 등)

- AAA 지정 서비스 업체
- AC 델코 프로페셔널 서비스 업체
- 뉴멕시코주 버널리오 카운티
앨버커키시 차량 정비 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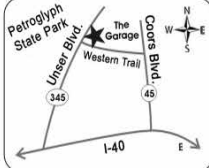
문의사항 (505) 352-5152

웹사이트 <http://thegaragenm.com>

근무 시간: 월요일 ~ 금요일 오전 7시 ~ 오후 6시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

* 근무외 시간에 차량을 맡기실 경우, 차량을 주차장에 세워두고 열쇠함에 열쇠를 넣어주세요.

6441 Western Trail NW, Albuquerque, NM 87120



H&R BLOCK

NAMI ROYBAL
한국성명: 류정남
TAX SPECIALIST 2



8201 Golf Course Rd NW
Ste F-2
Albuquerque, NM 87120
Office: 505.792.0997
Cell: 505.220.9372
Fax: 505.792.7871
nami.roybal@tax.hrblock.com

AVAILABLE YEAR-ROUND
BY APPOINTMENT
HRBLOCK.COM

**세금보고를
해 드립니다**

CUDDY & McCARTHY, LLP

Attorneys at Law
(<http://cuddymccarthy.com>)

우리 로펌은 1917년에 근간을 둔
다양한 분야의 법률대리를 담당하는
종합법률사무소로서 산타페와
앨버커키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한 노영준(Jun Roh)
변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 87505
Tel: 505-988-4476

一番 Ichiban

Japanese Restaurant




10701 Corrales Rd NW,
Albuquerque, NM 87114
(505) 899-0095

11:00am to 2:30pm (Mon-Sat) for Lunch
4:30pm to 9:00pm (Sun-Thur) for Dinner
to 10:00pm on Friday & Saturday

HUONG THAO

베트남 식당
Vietnamese Cuisine

Lunch & Dinner Beer & Wine
Tues-Sat 11:00am-9:00pm
Sun 11:00am-8:30pm

1018 B Juan Tabo NE
Albuq., NM 87112 (505)292-8222



Yummi House

雅緻苑
Chinese Cuisine(중화요리 전문식당)

Mon-Sun. 11:00am-9:00pm
1404 Eubank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Phone (505) 271-8700

추천 메뉴
삼선짜장면 / 삼선짬뽕
해물탕면 / 다섯가지 냉채
관동기, 닭고기 튀김과 마늘소스
탕수우육 / 양장피 잡채